

# “개알규제 여전… 그래도 샌드박스에 도전해 보길”

##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신청개수 대비 통과개수 미흡 협회차원서 샌드박스 신청해야”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최근 정부에서 승인된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 후 장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17일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기간·일정지역에 한정해 면제해주는 제도로 현 정부 때 최초 시행됐다.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 및 디지털소통센터가 17일 공개한 ‘100개 회사에 100개 스토리-개알 규제들이 달라지나’ 주제로 진행된 장 위원장 인터뷰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점수 관련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장.

/연합뉴스

“기대에 비하면 사실 미흡하다”며 “규제 샌드박스는 게 일단 시도해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신청이) 올라간 개수 대비 통과된 개수가 사실 미흡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

고 있다”고 부연했다. 기업에서 요청한 규제 사례를 전부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게 장 위원장 입장이다. 장 위원장은 규제 샌드박스 관련부처 장관들을 향해 쓴소리도 곁들였다. 장 위

원은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는 개선이 된다. (다만) 실제 기업환경에서 문제가 있는, 아주 자잘한, 개알 같은 규제들이 정말 많다”고 관련부처에 더욱 섬세한 규제 관심을 당부했다.

장 위원장은 “연초 (청와대에서) 약 200명의 중소기업계 인사가 모여서 대통령 행사를 했다. (당시) 더 발언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으나 어쩔 수 없이 끊어야 했다”며 “왜 그런가, 회사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다. 그중 반 이상은 다 ‘규제’ 얘기였다”고 설명을 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중소·벤처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바다.

장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가급적 (규제 샌드박스 사례 신청이)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되고, 일단 ‘규제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규제 샌드박스로 도전해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게임인더스트리(산업) 관련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다. 이러한 규제를 한 회사가 아닌 협회 차원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2월11일, 4건)·과학기술정보통신부(2월14일, 3건)는 각각 최초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체계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라면서 “그동안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존 규제혁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중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 대표정책”이라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당 대변인들이 선호하는 IT기기는?

## “노트북 보단 휴대성 좋은 스마트폰”

더민주 이해석 아이폰+키보드 자유한국당 장능인 ‘삼성’ 폰+노트북 바른미래 김정화 갤럭시 노트 ‘펜’ 민평 문정선 삼성+애플 ‘한미평화’

공식 성명이나 비공식 태도를 발표하는 대변인은 ‘정당의 입’이다. 중책인 만큼 당의 입장을 국민에게 명쾌하게 전달하고 언론 보도를 실시간 파악하기 위해 실용성 있는 전자기기 사용은 필수다.

메트로신문은 17일 각당의 대변인이 사용 또는 선호하는 전자기기를 알아봤다.



장능인 자유한국당 대변인(오른쪽)이 본인의 ‘갤럭시S7’으로 필자(왼쪽)와 셀프 촬영하고 있다.

서인지 휴대폰은 곧 바꿀 예정이다. 장 대변인은 “카카오톡 용량만 현재 15GB”라며 “사진까지 포함하면 용량이 계속 넘쳐 곧 바꿀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래도 삼성전자 애용자답게 올해 나올 ‘갤럭시S10’을 구입할 거라고 귀띔했다.

노트북은 5년째 삼성전자 ‘아이브 NT 910S3G’를 쓰고 있다. 그는 “노트북은 지난 2014년 출시 때부터 사용했지만 아직 까진 쓸만하다”며 웃었다.

◆‘개혁보수의 힘은 펜에서’…김정화 대변인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펜이 없으면 불안하다. 김 대변인이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8’을 쓰는 이유다. 김 대변인은 “노트에 달린 펜이 너무 편해서 한 번도 노트북에서 (기종용) 바꾼 적 없다. 펜이 없으면 안된다”며 기기 밑에서 펜을 꺼내들었다.

노트북은 LG전자가 지난 2014년 출시한 ‘그램 13’를 사용한다. 두께 1.36cm, 좌우 4.4mm 베젤, 마그네슘 소재의 얇으면서도 견고한 이 기기는 출시 당시 호평이 이어졌다. 김 대변인이 쓰는 이유도 역시 “가벼워 용이하다”는 것이다.

◆‘전자평화당’…문정선 대변인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휴대폰은 국산, 태블릿 PC는 미국 제품을 사용하며 한미 평화를 구축하고 있다. 노트북은 과감히 안 쓴다.

문 대변인의 휴대폰은 삼성전자 ‘갤럭시J7’, 태블릿 PC는 애플 아이패드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보급형 스마트폰을 쓴다는 것도 상당히 의외지만, 그만큼 보급폰도 프리미엄 폰 못지 않는 것을 방증한다.

문 대변인은 “기기를 잘못 다루면 한 번 사면 고장날 때까지 사용하는 스타일”이라며

“무거운 기기를 들고 현장을 다니기도 번거로워 가벼운 것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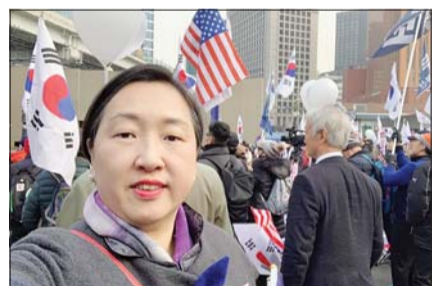
아이패드는 한 문서를 오랫동안 봐야 할 때나 메일 등을 확인할 때 사용한다.

◆‘정의당 애플이’…최석 대변인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본인을 ‘애플이 (애플 추종자를 일컫는 말)’라고 소개하며 웃었다. 지금까지 사용한 아이폰 시리즈를 여태 모아놓고 있을 정도다.

최 대변인은 “(아이폰이) 컴퓨터 호환도 안 좋고, 쓰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가장 쓰기 좋은 휴대폰은 국산 제품”이라면서도 “아이폰만 쓰다보니 배신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현재 ‘아이폰 8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다.

노트북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제 무기 중 하나는 블루투스 키보드”라며 로지텍 ‘k380’을 강력 추천했다. 추천 이유는 블루투스 기능이 3개나 있어 컴퓨터와 휴대폰, 태블릿 PC와 호환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의당 애플이’ 최 대변인의 태블릿 PC는 삼성 갤럭시 탭이다.



인지연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의 아이폰 XR 셀프 촬영.

◆‘제품도 친미’ 애플 마니아…인지연 수석대변인

인지연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도 10년째 애플 제품을 애용하고 있다. ‘아이폰 XR’을 쓰던 인지연 수석대변인은 얼마 전 기기를 물에 빠뜨려 현재는 아이폰 X를 쓰고 있다. XR 제품은 수리 중에 있다.

인지연 대변인은 “2·3세대 통신 서비스 시절부터 아이폰을 썼다”며 “꾸준히, 열심히, 소중하게 사용하는 유저”라고 말했다.

노트북도 애플 제품 ‘맥북 에어’를 쓰고 있다. 인지연 대변인은 “삼성전자 노트북도 있지만, 맥북이 좀 더 폼나서 삼성 노트북은 서버로 쓴다”고 했다. /식대성 기자 bigstar@

## 장성택, 1심서 ‘사형’… 허울뿐인 3급2심제

### 법으로 보는 북한

2심 신청엔 형량 느는 등 ‘불이익’ 북한주민의 공개재판·사형 빈번

# 장성택 전 북한 노동당 행정부장은 장소 없이 처형됐다.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는 2013년 12월 국가 전복 음모죄로 그의 사형을 선고했고, 형은 즉시 집행됐다. 5년 뒤인 2018년 2월,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9월 2심은 그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11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북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단 한번의 선고로 사형될 수 있다. 인민재판소·도재판소·최고(중앙)재판소가 있지만, 최고재판소가 1심을 진행할 수 있어 상소를 기대할 수 없다. 1심 관할 분배에 뚜렷한 기준이 없어서다.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3심제인 한국과 국제 기준을 한참 벗어난다.

◆최고재판소가 첫 재판…사실상 1심제

북한 형사소송법상 인민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 최고재판소 관할에 없는 일반범죄사건을 맡는다. 도재판소는 인민재판소 관할 사건을 재판하거나 다른 인민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 최고재판소도 어느 관할의 1심이든 직접 재판할 수 있다. 특별재판소는 군사범죄사건을 다루는 군사재판소와 군수공업 부문을 맡는 군수재판소로 나뉜다. 3급 2심제를 택한 북한에서 장성택 전 행정부장이 선고 한 번으로 사형될 수 있었던 이유다.

북한의 2심은 1심에 불복하는 피소자, 변호인, 손해배상청구자가 요청할 수 있다. 검사는 ‘항의’한다. 2심은 도재판소와 최고재판소가 진행한다. 도재판소는 도내 인민재판소 판결에 대한 상소, 항의 사건을 2심으로 다룬다. 최고재판소는 도재판소와 특별재판소 1심의 상소, 항의 사건을 2심으로 재판한다.

상소와 항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최고재판소 1심이 판결한 사건과 2심, 비상상소심, 재심 판결이 나온 경우다. 비상상소심은 법에 어긋난 확정판결이나 판결을 바로잡는다. 특히 북한 형사소송법 362조는



북한은 2013년 12월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에게 ‘국가전복음모의 극악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바로 집행했다. 양 손을 포승줄에 묶인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원들에게 잡힌 채 법정에서 있다. /노동신

‘상소, 항의할 수 없는 판결, 판결을 내렸을 경우’를 판결 확정 요건으로 규정한다.

2심 신청에는 불이익이 따른다. 통일연구원의 2017년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탈북자 A씨는 2010년 3월~7월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재판 이후 상소를 포기했다. 그는 주변에서 ‘상소할 경우 형기가 10년 늘어났다’고 말려 2심을 포기했다. 2014년 8월 양강도 삼지연군에서 재판 받은 B씨도 1~2년이 예상되는 구류 기간 중 영양실조에 걸릴 것을 우려해 상소를 포기했다.

◆빈번한 총살에 참관 강요도

공개 총살 참관 강요 사례도 있다. 2016년 연구원 조사에서 탈북자 D씨는 2014년 8월 양강도 거주 당시 마을 주민 300여명이 운동장에 모여 공개처형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북한에서 공개처형은 빈번하다. 대한변호사협회의 ‘2018 북한인권백서’를 보면, 2015년 1월 이후 탈북한 주민 50명 중 34명(68%)이 공개재판으로 사형 선고하는 모습을 봤다고 답했다. 그 중 22명이 이런 재판을 3번 봤다고 했다.

공개재판 직후 사형이 집행된 상황을 본 응답자는 27명이었다. 이 가운데 15명은 이런 사형 집행을 3번 이상 봤다고 한다.

자의적인 사형제는 북한 주민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백서에 따르면 응답자 50명 중 25명은 김일성 일가 비판 등 정치적 이유로 사형을 당했다고 답했다. 한국 드라마 자료 등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형 당했다는 응답자는 12명이었다.

/이범중 기자 joker@